

탐방노트: 뉴로스 (126870) :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수소차에서 앞서는 이유

Analyst 이왕진 02-709-2625

CP 6,870원 | 시가총액 1,316억원 | 수익률 1M +75.0%, 3M +14.7%, 6M +6.4%, 1Y +9.9%

기업개요

- 뉴로스는 지난 2000년 5월 9일 삼성테크윈에 크루즈 미사일 개발 팀장 이었던 김승우 대표가 설립하였다. 동사는 압축기, 팬, 펌프, 송풍기 등의 제품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로는 크게 블로워 사업부, 항공 사업부, 자동차 사업부, 발전 사업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쟁사로는 미국의 Honeywell, 스위스 Celeroton이 있다. 2018년 예상 매출 비중은 수처리용 주로 쓰이는 터보블로워 73.5%, 자동차용 공기압축기 3.1%, 항공기용 공기압축기 6.0%, 연료전지 2.7%, 환경 및 신규 9.0%이다.

투자포인트

- [세계 유일 수소차 공기압축기 상용화 성공업체] – 현대차가 총주 제 2공장을 증설하며 2030년 까지 연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소차 렌터업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 ‘경기 평택시 내년 수소차 넥쏘 대폭 지원’, ‘20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곳 추가 건설’ 등 수소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사는 동사만의 자체적이고 독보적인 에어베어링을 개발하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어베어링을 적용시킨 공기압축기를 상용화 시켰다. 유일하게 비교 가능한 업체인 미국 Honey well의 경우 에어베어링을 적용시킨 공기압축기를 구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용화 가능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는 향후 수소 전기차 발전에 있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터보 블로워사업: 안정적 cash cow+신규시장 진입] – 블로워는 쉽게 말해 스키장에 에어컴프레서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설비이다. 일정량의 공기를 흡수하여 압축된 공기를 토출시킨다. 적용 산업으로는 폐처리 시설부터 시멘트공장, 발전소 탈황 설비, 화학공장, 반도체 Fab까지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동사가 영위하는 터보 블로워는 블로워 시장에서 high-end급 제품에 속하며 주로 수처리 시설에 납품되었다. 동사의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 전기 사용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친환경적 이다는 장점이 있어 교체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로 탈황 설비에 블로워가 들어가, 외형성장이 기대된다.
- [항공사업: 대규모 신규 수주] – 동사의 항공사업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영위하는 사업부이다. 동사는 지난 2018년 11월 터키 F16 전투기에 대해 환경제어시스템 부품을 납품하였다. 현재 터키에서 테스트 중에 있으며, 약 6개월~1년의 시운전 후 약 6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주 계획이 있다. 또한 국책과제 중 하나인 에어버스 헬리콥터 국산화에 대해 동사는 난방환기장치를 납품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양산될 예정이며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Financial Data					
12월 결산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369	349	423	441	448
영업이익	48	-1	5	16	23
영업이익률(%)	13	-0.2	1.2	3.6	5.1
세전이익	31	3	5	15	-61
당기순이익	29	3	6	11	-55
EPS(원)	574	56	90	77	-379
증감률(%)	3.5	-90.2	60.1	69.1	적전
ROE(%)	8.7	0.8	1.3	2.2	-10.8
PER (배)	12.3	135.4	103.3	61.9	-14.1
PBR (배)	1.0	1.1	1.3	1.3	1.6
EV/EBITDA (배)	11.1	31.0	36.5	24.6	-73.2

자료: 뉴로스,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